

돈이 없어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대접하는 사회복지단체를 찾아왔습니다. 이 단체는 일주일에 세 번씩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밥과 반찬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음식을 만드는 일과 설거지 등도 모두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그릇에 밥을 담은 자원봉사자들의 모습과, 밝은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